

2. 마을신앙

마을신앙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에게 동민들의 무병·안녕과 풍년을 빌기 위해 드리는 마을공동제사로 흔히 동제(洞祭) 또는 당산제(堂山祭)라 부른다. 당산제는 마을 단위로 치러지며, 마을사람들이 공동 주체가 되어 행한다. 당산제는 특정 신분이나 집안의 것이 아니라 마을사람 모두의 집단 제사이다. 마을에 여러 성씨가 모여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벌이 되지 않으며, 마을 공동체의 성원이라는 생각으로 동제에 관계하고 참여한다. 마을신앙은 공동체성과 문화적 기층성, 민중적 종교성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종교·사회·정치·축제·예술적 기능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요컨대 동제는 민속문화의 기층을 이루는 신앙체계이며, 이 체계 속에서 민중의 삶과 기원 그리고 즐거움의 여러 가지 의지가 활발하게 표출되어왔다. 이 지역에서 동제를 대개 당산제라 하며, 제사 지내는 것을 '제만 모신다'고 한다. 제사를 모시는 시기는 정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월 보름 또는 삼일날 주로 당산제를 모신다. 당은 신수(神樹)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인 마을 앞에는 당산나무라 부르는 거목이 있는데, 이 당산나무는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지는 오래되고 큰 나무로 당 형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외에 수구막이, 풍수신앙으로 쌓아 올린 탑·입석(立石)도 당의 한 형태로 신수와 복합되어 있기도 하고 신수와 관계없이 위치하기도 한다. 이 지역에는 돌을 원추형으로 쌓아 올린 탑이 매우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큰 돌을 세워놓은 입석과 구분하여 적석입석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탑은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동부 산간 농경시대 마을신앙의 한 특징을 보여주는 자료다.

순천의 마을신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산나무신앙과 탑신앙이다. 당산나무는 가장 기층적인 형태인데 이 형태에 장승이나 탑, 입석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탑신앙 또는 입석신앙은 독립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한 당 체계 속에 복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